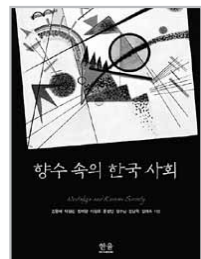


# 그땐 그랬지...세대 불안·육구 담은 추억팔이

## 향수 속의 한국사회

김왕배 외 지음



올해 초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이 있기 전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화두 가운데 하나가 향수(鄉愁)였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는 1997년에서 1994년으로, 그리고 다시 1988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뿐 아니다. '불후의 명곡' '콘서트 7080' 같은 음악 프로그램은 지나온 시절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소환해 안방을 점령했다.



향수 현상은 국가를 초월해 점차 보편적인 양상이 되고 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는 1997년에서 1994년으로, 그리고 다시 1988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그렇다면 향수란 무엇인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시름'을 뜻한다. 그리스어인 노스텔지어(nostalgia)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고 싶어 하는 병적인 귀향 감정"을 의미한다.

향수 현상은 국가를 초월해 점차 보편적인 양상이 되고 있다. 유럽 이민정책의 보수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등 극우화 바람 속에서 이 같은 추억에 대한 그리움은 확산 추세에 있다.

첫사랑, 교복, 집밥, 고향, 교복, 씨시봉, 애니팡까지 한국 사회의 여덟가지 향수 풍경을 조명한 책이 나왔다. 책은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 '노스텔지어'를 매개로 한국 사회를 입체적으로 읽어낸다.

김왕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 정치학, 국문학, 인류학, 교육학 등 모두 8명의 전공자들은 향수 현상을 분석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한마디로 책은 우리 사회 향수 현상의 원인과 양상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최근의 정권 교체 이후 향수 현상이 다소 수그러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향수 현상의 속성과 발생 논리에 의해 설명되거나 맞닿아 있다"는 게 저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향수 가운데 하나가 음식에 관한 부분이다. 요즘 인기 있는 방송 가운데 하나가 '먹방'이다. '시골밥상', '어부밥상', '삼시 세끼' 등은 과거로의 회귀를 보여준다.

박형진 사회학 박사는 "음식 향수의 요체는 음식의 맛을 가장한 '정'으로 표현되는 가족 감정이다. 따라서 어머니 손맛의 감정구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먹는가 하는 것"이라며 "어머니 손맛 향수는 먹기의 공동체성의 상실에 대한 개별화·파편화된 현대인의 감정적 반응"이라고 본다.

그러나 저자들이 바라본 향수 풍경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씨시봉, 애니팡, 교복 여행의 열풍이나 386세대 작가들의 운동권 향수에서는 특정 세대 불안과 인정 욕구를 포착한다. 정치적 향수의 사례 가운데 하나인 박정희 향수에 대해서

는 특정 세대의 고유한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감정의 민주화'라는 장기적 과제 속에서 박정희 향수를 극복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본다.

저자들은 향수는 시대의 우울한 분위기를 반영하지만, 이 구조가 밝혀질 때 억압의 실재를 밝고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감정이 행위를 견인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향수를 벗어난다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프로이트의 말처럼 인간은 "원초적인 불리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변화를 견인하는 매개로 '성찰적 노스텔지어'가 필요한 이유다.

<함울·2만9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여행지서 생긴 나만의 노래 하나씩은 있잖아

## 사랑은 달아서 끈적한 것

박상 지음



이 책을 읽다보면 웃지 않을 수가 없다. '웃기는 것에 매혹을 느끼며 살아왔고', '인생이라는 것도 웃기는 것의 아름다움과 그 허무 사이의 진찰을 헤매는 시간'이라 생각하는 한 소설가가 써낸 글이니 얼마나 웃기겠는가.

이 책을 읽다보면 콧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 팝, 가요,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재로 한 '음악 에세이'다 보니 글을 읽으며 멜로디를 흥얼대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사랑은 달아서 끈적한 것'은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소설가 박상의 '본격 뮤지 에세이'다. 그는 문인밴드 '말도 안돼'의 기타리스트

트이자 '록 정신'을 주제로 한 장편소설을 쓴, 음악적 인간이다.

책은 스페인, 런던, 독일, 베트남 등 10년간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들었던 음악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 '여행 에세이'로 봐도 무방하다.

일단 그가 다룬 40여곡의 노래 목록이 흥미롭다. 핑크 플로이드, 아바, 스탠 캣츠, 제이슨 트라브, 유엔 미 블루, 노라 조, 빅뱅, 여기에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3번'에 이르면 '전방위'로 음악을 듣는 그의 취향에 놀란다.

책에는 후쿠오카에서 듣는 노 브레인

의 '한밤의 뮤직', 독일 드레스덴에서 피아노로 감상한 이오시프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결', 공황하면 떠오르는 '거북이'의 '비행기', 김창완 밴드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제이슨 트라브의 '럭키', 빅뱅의 '루저'까지 다양한 장르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시간 날 때마다 한 쪽씩씩 읽고, 그 음악을 듣다보면 절로 유희해질 책이다. '뉴클리어'의 '아름'처럼 생소한 노래들은 유튜브를 통해 찾아 들어보고 싶게 만든다.

보너스 트랙은 4편의 여행기다. 저자는 방콕 카오산 로드와 바이칼 호수, 파리의 이야기를 또 '웃기게'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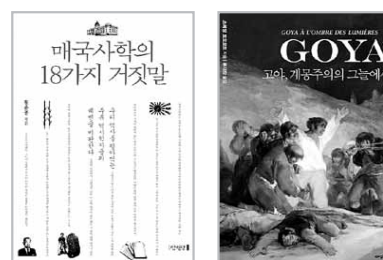
<작가정신·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조조 리더십 혁명=이 책은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안목으로 명저를 써온 신동준 박사가 삼국시대를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간 조조의 난세 리더십과 세계 석학들의 진단을 통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고전을 한 자 한 자 독해하여 예를 들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난세의 영웅 조조와 그의 리더십을 낱말로 파헤친다.

<리더북스·1만8000원>  
▲스트레인저=아름다운 아내 커린과 두 아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꿈같은 삶을 살고 있는 애덤은 어느 날 한 술집에서 그에게 접근한 낯선 자로부터 아내의 비밀을 전해 듣고 경악한다. 바로 몇 년 전 아내가 임신하고 유산했던 일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 충격적인 이야기에 애덤은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만, 그의 추궁을 들은 아내 커린은 도리어 자취를 감추고 만다. 어느 날 다가온 낯선 자의 한마디에 산산이 부서지는 일상의 공포를 그린 소설.

<문학수첩·1만3000원>  
▲미국사학의 18가지 거짓말=한사군에서 임나일본부까지, 일제강점기 식민사학들의 주장을 추종하는 미국사학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문헌을 토대로 논리적인 반박의 근거를 제시하는 책.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며 조선총독부가 전파한 사관을 전파하고 있는 미국적 역사학자들이 흔히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18가지를



까발리고, 그에 대한 학문적인 답변을 통해 우리 고대사의 진실을 찾아간다.

<만권당·1만5000원>  
▲고야, 계몽주의의 그늘에서=고야는 계몽주의가 그늘 속에 모호하게 내버려둔 모든 것을 집요하게 탐색했다. 1793년부터 1828년 죽음을 맞을 때까지 계속된 탐색을 통해 그는 의지와 이성만큼이나 인간의 삶을 조종하여 폭력과 광기에 이르게 하는 어두운 힘을 발견했다. 고야가 밝혀 보이는 것들은 우리 시대와도 무관하지 않다. 저자 조베탕 토도르프는 이 책에서 천재 예술가 고야의 강력한 '사상'을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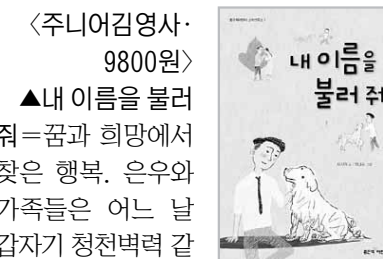
<아모르룬다·1만6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나는 아빠가=균형 잡힌 아빠 상(像)을 그린 아빠 그림책. 2017년 볼로냐 리카 치상을 받은 조원희 작가와 안단태 작가가 모든 평범한 아빠와 아이에게 선사하는 아빠 그림책이다. 아이가 바라고 상상하는 아빠와 일상에서 마주치는 아빠를 두 박자의 호흡으로 구성하여 아빠를 향한 아이의 마음을 오롯이 담았다. 평범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아빠와 마냥 어린 것 같지만 속 깊은 면도 있는 아이가 펼쳐보이는 세계를 그렸다.

<우주나무·1만3000원>  
▲교과서 너머 기묘한 수학 이야기=교과서 너머에 있는 8가지의 기묘한 이야기를 통해 신비한 수학 원리와 수의 세계를 체험하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자주 먹는 패스트리 빵을 만들 때에는 거듭제곱의 원리가 쓰인다는 사실, 독일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까닭이 암호 수학 때문이라는 사실,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약속 다섯 번을 한다면 대통령과 약속을 한 것과 같다는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수학 원리를 설명한다.



<주니어김영사·9800원>  
▲내 이름을 불러줘=꿈과 희망에서 찾은 행복, 은우와 가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정전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앞을 볼 수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숲 속기조차 힘들 만큼 서서히 죽어갈 것까지 오랬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길어야 삼 년밖에 기대할 수 없었던 은우의 삶이 이십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좋은책 어린이·1만원>

<h2 style="text-align: center;">부안 숙박시설(모텔) 매매·임대</h2> <p style="text-align: center;"><b>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b></p>  <p style="text-align: center;"><b>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b>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b>감정가 16억 → 매매가 9억</b> (웅 6억, 보 1억, 실투자 4억) ★즉시임대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b>직매 010-7384-7800</b></p>	<h2 style="text-align: center;">영광주택</h2> <p style="text-align: center;"><b>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b></p> <p style="text-align: center;"><b>즉시입주 가능 내부개끗</b></p> <p style="text-align: center;">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 style="text-align: center;"><b>감정가 1억 1천 매가 9천8백</b></p> <p style="text-align: center;"><b>010-6670-9800</b></p>	<h2 style="text-align: center;">법률경매 (주)대신경매</h2> <p style="text-align: center;"><b>노후대비 최적합</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무지구 치평동 상가 1층 감정가 16억 - 최저가 5억7천</li> <li>2) 동구 금남로 총장로 코너(15층 상가건물)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75억(특A급)</li> <li>3) 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광주대 3분거리, 월수익 5백 이상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li> <li>4) 남구 진월동 (5층 상가건물)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li> <li>5) 북구 신안동 (무인텔) 감정가 51억 - 최저가 36억</li> <li>6)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 - 최저가 17억</li> <li>7) 북구 중흥동 (3층 상가건물)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9억6천</li> </ol> <p style="text-align: center;">특수물건, 절반물건, 상가, 토지, NPL전문</p> <p style="text-align: center;"><b>경매교육</b></p> <p style="text-align: center;">매주 월요일 개강 기초부터 실전까지 062-382-5500</p>
--	--	--